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의 분석과 개선 방향

박영석* · 최병일**

【요약문】 이 연구는 인지적 요소 못지않게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의 핵심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개발되어 타당성이 검증된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인 EAS, ATE, EVI, SAEE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태도 측정 도구의 목적과 측정 내용 요소 추출 및 구성 방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AS, EVI, SAEE는 경제 이슈나 현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고 ATE는 경제 과목(학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일부 경제 태도 측정 도구는 설문 응답자와 경제전문가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태도 점수 척도를 산출하는 방식도 합계적 방식, 영역별 방식, 문항별 방식으로 차이가 있었다. 경제 태도 검사 결과를 인지적 성취도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당한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측정하려는 태도의 성격, 하위 문항 내용 요소 구성에서 새로운 경제 변화 요소의 반영, 태도 지표 설정과 활용 방법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제 태도, 경제 태도 척도, 정의적 요소, 태도 측정

* 제1저자,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yspark@ginue.ac.kr).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choi0704@kangwon.ac.kr).

I. 서론

경제 구조가 기술 발전으로 급변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적 직관과 가치 판단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유효한지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경제 환경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 체계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고착되는 경향은 Ogburn(1922)이 제시한 ‘문화 지체(cultural lag)’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급격한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규범·가치관 등 비물질문화의 수용 속도가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적 불일치’는 경제 분야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 및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 처리의 한계에 직면한 대중은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기존의 심리적 프레임이나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기술 진보는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개편할 뿐만 아니라 시장 기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인 플랫폼 경제는 거래 비용 절감이라는 편익과 함께 규제 공백 및 노동 보호 이슈와 같은 부의 외부성을 동반한다.

이처럼 복잡해진 경제 환경은 개인에게 높은 인지적 비용(cognitive cost)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Tversky와 Kahneman(1974)은 불확실성 하의 판단 기제로서 휴리스틱이 체계적인 인지적 편향을 유발함을 입증하였으며, Triandis(1977)는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는 경제 태도가 지식 습득의 전 단계에서 특정 정보의 신뢰도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제교육 연구 분야에서 경제 태도에 관한 논의는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기구(INFE)가 금융이해력을 ‘지식, 행동, 태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태도를 지식의 행동 전이 과정을 매개하는 결정적 변인으로 다루는 금융이해력 연구의 흐름과 대조적이다. 금융 분야에서 표준화된 태도 측정 지표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것과 달리, 경제 태도 측정 도구들은 Walstad와 Soper(1983)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술적 엄밀성보다는 관행에 의존하여 개발되었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신뢰도 및 타당도 등 기술적 통계 정보가 결여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경제 태도 연구의 정립이 요구된다. 초기 연구들이 특정 교수자의 강의 맥락에 종속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와 표준화된 도구가 도입되었으나, 정의적 측면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측정은 여전히

히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모순이 존재했다. 특히 측정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환경 규제, 소득 보장 등 사회적 찬반이 대립하는 민감한 쟁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태도의 본질적 속성인 가치 판단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Phipps와 Clark(1993)은 태도 구조를 단일 차원으로 가정하고 통계적 검증 없이 문항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구성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공백은 플랫폼 노동이나 신기술 도입과 같은 현대 경제의 시의성 있는 쟁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측정 내용 영역의 재구성과 측정 문항 설계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경제적 태도 조사 도구를 분석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미국 경제교육 분야의 대표적 측정 도구인 경제 태도 정합도(EAS),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ATE), 경제적 가치(EVI), 대중 및 전문가의 경제 인식 조사(SAEE)로 설정하였다. 분석 기준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 목적, 태도의 정의 방식, 내용 주제의 추출 및 유목화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한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향후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교육 평가의 영역을 지식 중심에서 태도와 가치 분야까지 확장하고, 경제 태도와 인지적 이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제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지식 전달이나 이해에 치우친 학습 실태를 성찰하고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경제 태도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경제교육의 방향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경제 태도와 측정

경제 태도(economic attitude)는 경제 현상과 정책,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 성향과 판단 경향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구성개념이다. 태도 개념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Triandis(1971)는 태도를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이 실린 생각(an idea charged with emotion)”으로 규정하고, 태도가 인지적 요소(cognitive), 정의적 요소(affective), 행동적 요소(behavioral)로 구성되는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Triandis의

구조에 따르면 경제와 관련한 태도는 단순한 ‘호불호’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과 행동의 준비 상태까지 포괄하는 다차원 개념이다.

이와 같은 태도의 복잡한 구조와 개념으로 인해 경제교육 분야의 연구는 지식 측정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태도 측정은 상대적으로 희소하였다. Dawson(1977)은 고등학교 경제교육 평가가 인지적 성취에만 집중해 태도 측정을 경시하는 경향을 지적하였고, 그 원인을 적절한 태도 측정 도구의 부재 및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결여로 진단하였다. Becker(1983)는 인지·정의 영역 모두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Walstad와 Soper(1981)는 기존 도구들이 기술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초기 경제 태도 연구는 경제학 수업이 학습자의 의견과 판단을 변화시키는데 대한 경험적 관찰에서 출발하였다. Kornhauser(1930)는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강의 전후에 논쟁적 경제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자유무역, 노동조합, 주식투기, 소득 상한, 정부의 산업 운영 등에 관한 다수 문항을 통해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제학 강의 이후 태도를 측정하는 일부 문항은 동의율이 전보다 상승한 반면, 보호관세 지속, 보수적 대통령 필요, 주식투기 근절 등에 대한 동의율은 감소하는 등 문항별로 상이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Kornhauser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경제학 강의가 학생들의 태도를 개방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과학적 절차에 대한 고려를 강화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제 태도가 경제 지식이나 지적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만 이 시기 연구는 측정 도구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분석이 특정 교수자·특정 강의 맥락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태도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경제 지식과 경제 태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 경제 태도 연구는 대체로 경제 현상에 대한 의견은 현실 세계에서 형성되며, 관련 지식이 풍부할수록 더 의미 있고 이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Mann과 Fushfeld(1970)는 ‘attitude sophistication’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을 통해 경제 태도 정교화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고, 교수자의 행동과 학생의 성격, 성취 특성이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Meinkoth(1971) 또한 교수자의 영향이 경제 태도 형성에 유의미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Rothman과 Scott(1973)는 정치 태도가 본질적 가치뿐 아니라 ‘현실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경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이론과 일관된 현

실 인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였다. 이들은 대학생의 정치 태도와 TUCE 점수의 관계를 분석하여 두 변인이 관련 있으며, 경제학 과목 이수 여부가 자유주의 성향과 관련된 정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후 Scott과 Rothman(1975)은 연령, 전공, 경제 지식 등이 학생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Riddle(1978)은 노동조합, 경제조직과 권력 구조, 사회 복지, 경제적 자유, 고용·인플레이션 등 5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경제학 수강이 의견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Metzner와 Sims(1978)는 청년층의 반기업 성향에 주목하면서 전공, 가구소득, 정치 성향, 종교, 성별, 근로 시간 등이 친기업 태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연구들은 경제학 수업이 특정 경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 특성 변인이 태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Soper와 Walstad(1983)는 체계적인 태도 측정을 위해 표준화된 도구인 SEA(Survey of Economic Attitudes)를 개발하였다. SEA는 경제학 과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와 경제 정책·현상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의 정교함을 측정하는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로 구성되었다. 즉 SEA는 ‘경제학에 대한 선호·흥미’와 ‘경제 이슈를 경제학적으로 정교하게 판단하는가’를 구분하여 경제교육 효과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Phipps와 Clark(1993)은 SEA에 요인 분석을 적용하여 태도 구조가 단일 차원인지 다차원인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단순 합산 점수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O’Brien과 Ingels(1987)는 경제교육이 지식뿐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EVI(Economics Values Inventory)를 개발하였고, 교재 『Our Economy: How it Works』 기반 수업 효과 측정 과정에서 도구의 활용 가능성과 높은 신뢰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SEA가 ‘경제학에 대한 태도’와 ‘판단의 정교화’를 강조한다면, EVI는 경제적 가치 지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도구라는 점에서 측정 목적이 구분된다.

이후 경제 태도 연구는 경제교육 현장의 학습 효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경제 현상과 정책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의견 형성과 여론의 방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조세, 국제무역, 정부 예산 등의 이슈에 대한 대중의 시각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제 태도 연구의 대상은 심리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지평을 넓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ashington Post, Kaiser Family

Foundation과 Harvard University가 공동으로 수행한 SAEE(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는 대중과 경제학자 집단을 비교하여 경제 성과 평가, 전망, 문제 원인 인식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확인한 대표적인 조사이다. 이후 Caplan(2001)은 SAEE 자료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며 교육 수준 등 개인 특성과 경제 믿음 격차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Sapienza와 Zingales(2013) 또한 경제 전문가 패널과 일반 대중의 응답을 비교하여 정책 이슈에서 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이 경제 현상을 해석할 때 나타나는 체계적 편향(systematic bias)과 비인지적 요인(non-cognitive factors)을 중심으로 경제 태도 연구가 심화되었다. Caplan(2001, 2007)은 대중의 경제적 믿음이 무작위적 무지의 산물이라기보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편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반시장, 반개방, 비관적 편향 등으로 요약되는 인식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경제 태도 연구가 단순히 ‘지식 부족’만이 아니라 직관·가치 판단의 구조를 함께 다루어야 함을 시사했다.

국내에서 수행된 경제 태도 연구는 경제학 또는 경제교육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실증이 이루어져 왔다. 장경호·한경동(2010)은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참가자를 대상으로 Walstad와 Soper(1989)의 경제학 태도 문항을 활용하여 성적, 가정 배경, 경제학습 경험 등이 경제학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창완(2015)은 중학교 『사회』 과목 경제 단원 학습 이후 경제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여 경제 단원 선호도와 유용성 인식은 개선된 반면 ‘관심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진수(2013)는 초등학교의 경제 태도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용 경제 태도 검사 도구(SEAEL)’를 제시하였고, 경제에 대한 인식·경제 의식·경제 습관의 3개 영역,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최호상(2003)은 대기업에 대한 태도, 김근영 외(2004)는 기업의 역할과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최병모 외(2004)는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조병철(2006)은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와 경쟁에 대한 인식, 오영수·권우택(2007)은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태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미국에서 경제 태도 측정을 위해 개발된 4개의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1979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 태도를 측정하는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와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 1984년의 EVI(The Economics Values Inventory),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1996년의 SAEE(The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이다. 이들은 크게 경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측정 목적이나 방향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경제 태도 측정의 목적과 태도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고 향후 타당한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측정 도구들은 경제 관련 전문 연구기관들이 개발에 참여하였고 개발 과정에서 타당한 개발과 검토 절차를 거쳤다.¹⁾

<표 1> 분석 대상

	개발 주체	측정 대상	개발 및 조사 절차
EAS (1979)	미국경제교육 협의회(JCEE)	- 고등학생 - 전국 35개 주 67개 고등학교 1,700명 조사	- Working Committee가 개발하고, 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검토 - EAS 14개 문항 개발
ATE (1979)	미국경제교육 협의회(JCEE)	- 고등학생 - 전국 35개 주 67개 고 등학교 1,700명 조사	- Working Committee가 개발하고, 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검토 - ATE 14개 문항 개발
EVI (1984)	미국경제교육 재단(FTE)	- 7~9학년 학생 - 전국 8개 학교 452명 학생	- 포커스 그룹 검토로 136개 가치 관련 진술문 개발 - 사전검사 요인 분석을 통해 44개 문항 개발
SAEE (1996)	워싱턴포스트/ 카이저재단/하 버드대	- 성인 - 전국 1,511명의 성인과 250명의 경제학자	- 언론, 지원기관, 대학의 협력 개발 - 51개 문항 개발

1) 경제 태도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태도 측정 도구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경제 태도 검사에 대한 구글스칼러 문헌 검색과 경제교육 학술지 검토 결과 4개의 측정 도구가 대표적인 유형의 경제 태도 측정 도구로 파악되었다.

첫째,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는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는 ATE와 함께 미국경제교육협의회(JCEE)가 개발한 ‘경제태도조사’(SEA, the Survey on Economic Attitudes)의 한 종류이다. 경제 성장, 무역, 정부 규제, 인센티브, 인플레이션 등 9개 범주의 주제에 대해 경제학 전문가 70% 이상의 합의를 얻은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Soper & Walstad, 198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14개 문항을 조사 도구에 포함하였다. 둘째,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도 ‘경제태도조사’(SEA)의 한 종류로 측정 도구의 명칭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경제 과목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미국경제교육협의회(JCEE)의 요청에 따라 1979년에 Working Committee가 개발하고, 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검토하여 14문항을 조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학생들의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EVI(The Economics Values Inventory)는 경제 태도의 기초가 되는 가치 요소에 주목하였다. 미국경제교육재단(Foundation for Teaching Economics)의 개발 요청에 따라 기존 경제 태도 척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미국경제교육재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토대로 가치 관련 진술 문항을 개발하였다. 파일럿 검사 후에 요인분석을 통해 44개의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8개의 하위척도로 구분하였다. 넷째, SAEE(The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는 성인의 경제 인식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세 측정도구와 차별화된다. 일반 국민과 경제학자의 견해를 동일한 문항으로 비교한 대규모 조사로,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카이저 재단(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1996년 성인 1,511명과 경제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미국 사회의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대중과 경제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5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분석 기준과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초점은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타당성을 갖춘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의 특징을 측정 목적과 측정 내용의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연구에서는 연구 범주가 명확하고 의미 있어야 하며 중요한 용어나 기준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Fraenkel, 1987; Siler, 1987).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2> 분석 기준

분석 범주	세부 분석 초점
측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태도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는가? · 경제 태도를 왜 측정하였는가? · 경제 태도 측정 도구를 어떤 방법(절차)을 통해 측정하였는가?
측정 내용의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내용(주제)을 측정하였는가? · 내용 요소를 어떻게 추출하였는가? · 측정 내용을 어떻게 유목화하였는가?

분석 기준으로 주목한 첫 번째 범주는 경제 태도의 측정 목적이다. 다양한 경제 태도 연구에서 경제 태도가 무엇인지, 왜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 범주를 명확하게 해야 타당한 추론이 가능하다(Berelson, 1952; Holsti, 1969). 이에 분석 대상인 4가지 측정 도구에서 경제 태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다. 경제 태도에 대한 정의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태도를 측정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 있다. 두 번째 분석 범주는 경제 태도 측정 내용의 구성 요소이다. 경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태도의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보호 무역에 대한 태도와 같이 경제 태도를 구성하는 주제가 문항의 형태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경제 태도 구성 요소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용 구성 주제들이 어떻게 추출되었는가를 확인하였고, 주제 영역과 하위 세부 문항의 구성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하였다. 내용 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각각의 경제 태도 측정 도구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다(Fraenkel, 1987). 이러한 분석 범주에 따라 4개의 태도 측정 도구의 특징을 분석하여 기술하고, 이를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EAS와 ATE는 미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 태도 조사(SEA)에 참여한 Walstad와 Soper의 연구(1983), EVI는 경제 가치 목록에 대한 O'Brien과 Ingels의 연구(1987), SAEE는 성인의 경제적 견해에 대한 Blendon 외의 연구(1997) 결과도 함께 분석하여 경제 태도의 핵심 쟁점별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았다.

IV. 연구 결과

1. 경제 태도의 측정 목적

경제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의 측정 목적과 방향은 <표 3>과 같다.

<표 3> 경제 태도 측정 목적

검사도구	측정 목적	측정 방법
EAS	- 경제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학생들의 경제 이슈에 대한 견해가 경제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견해와 합치하는 정도를 측정
ATE	- 경제 과목(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경제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용성 인식/ 학습의 어려움과 효능감 관련 항목을 측정
EVI	- 경제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 가치	- 경제 교과서의 가치 관련 내용과 주제를 반영하여 가치 진술을 포함한 주제 영역별 척도를 개발하여 측정
SAEE	- 경제 상황과 변화에 대한 대중의 견해	- 일반 대중과 경제전문가의 견해 차이 비교 - 대중의 경제 지식과 사실의 차이를 밝히고 잘못된 인식을 토대로 한 의견의 경향을 측정

1) EAS (경제 태도의 정합도 조사)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가 측정하고자 한 경제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경제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이다(Soper & Walstad, 1983). 경제 이슈는 ‘정부의 석유 가격 통제에 대한 찬반’, ‘실업자 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과 같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경제 현상이다. 견해 차이는 단순히 경제 이슈에 대한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감정적 선호 등의 영향도 받는다. EAS는 경제 이슈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경제학 지식 및 사고방식과 얼마나 정합적(sophisticated)인지를 평가하였고 규범적인 선호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은 배제했다. 경제 태도에 주목한 배경이 이해(understanding)와 같은 인지적

(cognitive) 측면이 아닌 감정(affect) 같은 비인지적(non-cognitive) 측면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점에서, 지식 및 사고 방식을 태도와 결부하여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론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EAS의 개발 과정에서 Mann 과 Fusfeld(1970)가 제시한 태도 정합도(attitude sophistication)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태도의 정합도는 의견이 현재 지식의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EAS는 경제 이슈에 대한 태도의 타당성 근거를 경제학자 집단의 합의(consensus)에서 찾았다. EAS에 포함된 태도 측정 문항은 경제학자 70% 이상의 응답이 일치하는 어느 정도 합의된 경제 이슈를 다루었다. ‘미국 노동조합은 너무 강하다.’와 같이 경제학자 7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항은 배제하였다. 경제적 이슈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의 진술문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1) 경제학자는 진술의 동의 및 부동의에 합치된 견해를 형성하고 있으며, 2) 대중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해결되지 않는 시의성 있는 경제적 이슈에 초점을 두며, 3) 중고등학생들이 고도의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고, 4) 학생에게 사용할 때 교육청 및 교사의 승인과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EAS를 통해 측정하는 태도의 정합도 차이는 대체로 대중적 직관과 경제학적 분석이 엇갈리는 경제 이슈에 대한 견해 차에서 나타났다. 예컨대 정부의 가격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진술,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탐욕으로 설명하는 진술, 기업의 이윤 수준이 과도하다고 일반화하는 진술은 대중의 직관적 해석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경제학계의 다수 견해와는 배치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에 대한 찬성은 경제학적 판단 구조와 괴리되므로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반대로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거나,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규제를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합의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즉, EAS 태도 점수는 응답 방향이 경제학적 분석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히 실업을 개인의 게으름으로 단순화하는 진술, 파업 시 정부 개입을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입장 등은 경제학적 설명의 복잡성을 간과한 비경제학적 판단으로 분류되며, 경제학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거의 얻지 못한 항목들이었다. 이와 같은 문항은 학생들이 경제 문제를 도덕적·감정적 차원에서 해석하는지, 혹은 경제학적 틀에 기반해 사고하는지를 변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 ATE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 조사)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가 측정하고자 한 태도는 경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유용성 인식, 그리고 난이도 및 효능감이다.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는 경제 학습의 지속성과 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지적 성취도 못지않게 정의적 요소로서 측정이 강조되고 있다.

ATE는 경제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경제 지식의 유용성 판단, 경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나 경제학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나 회피 경향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다층적 개념이다. ATE는 경제학 혹은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 관련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흥미는 경제학 학습 활동 자체에 대해 학습자가 느끼는 즐거움과 긍정적 정서를 의미하며, 경제 관련 기사나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탐색하는 경향과 직결된다. 경제학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은 학습 지속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용성 인식은 경제 지식이 일상적 의사결정, 소비·저축 행동, 사회 현상 이해, 진로 선택 등 실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제학을 단순히 학문적 지식으로 보지 않고 일상생활과 연결된 문제 해결의 가치 있는 도구로 인식하는 학습자는 경제 개념을 이해하려는 동기가 높다. 자기효능감은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적 문제를 분석 또는 해결할 수 있다는 학습자의 신념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경제학을 어려워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될수록 학습 참여와 인지적 성취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3) EVI (경제 가치 목록 조사)

EVI(Economics values inventory)는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가치를 포함한 진술에 대한 판단을 경제적 태도로 측정하였다. EVI가 ‘태도(attitudes)’와 ‘가치(values)’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태도와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EVI는 경제 교과서의 개념과 주제에서 태도 측정을 위한 문항용 진술문을 추출하여 목록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학습하는 경제 교과서의 개념과 상당수 주제가 경제적 가치와 태도를 내포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포함된 이러한 진술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경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EVI는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일반적 태도 척도와 달리 경제적 판단의 기저에 놓인 가치 판단(value judgment)

을 측정하였다. 경제 개념이나 정책 이해도와 같은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정당성, 정부 개입과 재분배에 대한 가치관, 경쟁·불평등·노동·복지에 대한 신념 등 경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가치 체계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더 높은 임금을 원한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 ‘평균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몫보다 적게 받고 있다.’와 같이 경제적 판단을 이끄는 기초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평가하였다.

4) SAEE (경제에 대한 대중과 경제학자의 견해 조사)

SAEE(The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에서 측정한 경제적 태도는 경제 현상과 변화 양상에 대한 견해였다. SAEE는 경제와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과 경제학자의 이해와 평가의 차이를 측정했다. 경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하는 이유는 대중의 의견이 경제 정책을 포함하는 공공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문제 해결과 적절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어 왔다(Sapiro & Jacobs, 1989). 그런데 대중의 의견은 실제적인 사실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경제 지식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제학자의 견해와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Blendon 외(1997)는 일반 대중과 경제학자의 견해 차이를 ‘현재와 과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 ‘경제가 왜 더 잘되지 않는가에 대한 인식’의 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Kearn 등(1979)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음에 비해, 대중은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고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SAEE는 대중들의 태도의 기저에 인식된 경제 지식(실업률 등에 대해 대중이 주관적으로 추정한 것)과 사실적 경제 지식의 괴리도 조사했다.

2. 경제 태도 측정의 내용 구성

경제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의 내용 영역과 세부 측정 내용 요소는 <표 4>와 같다.

<표 4> 경제 태도 측정의 내용 구성

검사 도구	측정 내용 영역 설정	세부 측정 내용 요소
EAS	1. 경제 성장, 2. 무역, 3. 정부 규제, 4. 인센티브, 5. 인플레이션, 6. 힘의 집중, 7. 조세, 8. 실업, 9. 복지	가격 규제, 인플레이션 원인, 기업 이윤, 조세 납부, 무상 의료, 은행 이자, 무직자의 게으름, 정부의 기업규제, 새로운 공장의 필요성, 소비지출의 자유, 모두의 수입 증가, 이윤 규제, 실업자와 게으름, 정부의 파업 개입
ATE	1. 경제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 2. 경제 과목의 유용성 3. 경제 과목의 난이도 인식	1. 경제 관련 기고 읽기, 경제학을 싫어함, 경제학은 따분함, 경제학을 즐김, 경제 관련 책 자발적 읽기, 경제학자 강의 참석, 경제 과목 선호 2. 경제학 공부는 시간 낭비, 경제 개념을 사용, 경제학은 실제적, 경제학 아이디어는 쓰레기 3. 경제학은 쉬움, 경제학은 무서움, 경제학 어려움
EVI	1. 미국 경제 체제에 대한 지지 2. 기업에 대한 신뢰 3. 경제적 소외와 무력감 4. 정부의 사회 복지 책임 5. 정부의 가격 설정에 대한 반대 6. 강력한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 7.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8. 경제적 현상 유지 반대	1. 희소성, 이윤, 기업의 기여, 노동과 임금, 직업선택의 자유, 경쟁의 효율성, 비용, 기술개발, 분업, 저축 2. 리스크, 법인세, 광고와 선택, 직업 선택 자유 3. 무력감, 성공과 운, 부당한 이용과 이윤, 성공에서 소외 4. 정부의 약자 보호, 사회권, 실업의 책임, 생활 수준 보장 5. 가격 통제 6. 노동조합의 힘, 비조합원 고용 7. 노동의 정당한 댓가 8. 부의 불균등 분배, 경제 상황, 사업의 기회, 불평등한 사회보장
SAEE	1.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2. 경제성장 영향 요인 판단 3.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	1. 경제 성장,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기업수익률, 재정적자, 풀타임 직업, 빈부격차, 가계 소득, 평균임금, 생활 수준, 중산층 인식, 새로운 직업의 임금, 투잡 2. 대통령 역할, 감세, 여성 고용, 기술 활용, 무역협정, 다운사이징, 해외 원조, 이민자, 기업 조세감면, 교육과 훈련, 복지혜택, 기업규제, 저축, 힘든 일 기회, 기업 이윤, 경영자 성과 보수, 생산성, 기술의 노동 대체, 고용 해외 이전, 유가 3. 가계 소득, 생활 수준, 자녀의 생활 수준, 신기술, 국제 경쟁, 다운사이징

1) EAS

EAS는 경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경제 이슈에 주목했다. EAS를 위한 개발위원회(Working Committee)는 측정 문항의 진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주제 범주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주제를 경제 성장, 무역, 정부 규제, 인센티브, 인플레이션, 힘의 집중, 조세, 실업, 복지의 9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여 개의 예비 진술에서 30개의 사전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개발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경제학 전문가들의 70% 이상의 응답 일치가 확인된 14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Soper & Walstad, 1983). 이 문항들에 포함된 항목은 가격 규제, 인플레이션의 원인, 기업의 이윤, 조세 납부, 무상 의료, 은행 이자, 무직자의 게으름, 정부의 기업규제, 새로운 공장의 필요성, 소비지출의 자유, 모두의 수입 증가, 이윤 규제, 실업자와 게으름, 정부의 과업 개입이었다. 결과적으로 문항 구성을 위한 초기 9개의 주제 범주와 최종 확정된 14개의 문항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EAS의 측정 내용은 경제학자 합의(consensus among economists)를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정부 규제, 조세, 복지, 인플레이션, 이윤, 노동시장, 가격 통제, 공공정책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제작되었으나 내용 중복, 난이도, 고등학생의 이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약되었다. 이후 경제교육 연구자와 경제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각 문항의 경제학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응답 방향에 대해 경제학자 70% 이상의 명확한 합의가 확인된 문항만을 최종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별 절차는 EAS가 경제학자 집단의 실제 합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응답자의 태도가 경제학적 판단의 정합성(sophistication)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EAS가 측정하는 것이 옳은 의견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도 아니었다(Soper & Walstad, 1983). EAS를 통해 측정된 태도는 개별 문항별 점수가 아닌 전체 총합 점수로 평가하였다.

<표 5> EAS 측정 문항

문항 번호	원문 문항 요약	태도 세부 영역 ²⁾	경제학자의 견해
1	Government should control gasoline prices	정부 개입·가격규제	반대
2	Inflation caused by greedy business & unions	거시경제 오해	반대
3	Business makes too much profit	시장 기능·이윤 이해	반대
4	People should not have to pay taxes	조세·공공재 인식	반대
5	Free medical care for all	정부 복지·정책 개입	반대
6	Banks should not charge interest	금융·시장 기능	반대
7	Unemployed people are lazy to work	실업·노동시장 인식	반대
8	Government should control big firms	정부 개입·산업규제	반대
9	New factories are not needed	생산·성장 인식	반대
10	People can choose how to spend money	시장 기능·개인 선택	찬성
11	More money makes everyone better off	거시경제 오해	반대
12	Profits should not be regulated	시장 기능·이윤 이해	찬성
13	Most unemployed people are lazy	노동시장 오해	반대
14	Government should settle strikes	노동시장·협상 구조	반대

2) ATE

ATE는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를 1) 흥미와 관심, 2) 유용성 인식, 3) 난이도 인식 및 자기효능감의 측면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의 영역과 구체적인 문항 구성 요소의 도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ATE 개발위원회에서 ATE 타입의 활용 가능한 선행 연구(Hodgin & Manahan, 1979 등)의 도구들을 검토하여 구성하고 부분 수정을 통해 확정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Soper & Walstad, 1983). 첫째, 경제학을 흥미 있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에는 ‘경제 관련 기사를 읽는 것을 즐긴다.’, ‘경제학을 즐긴다.’, ‘경제학자의 강연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는 경제 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적 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경제 지식의 유용

2) EAS의 태도 세부 영역은 연구자들이 측정 문항의 성격을 바탕으로 분류하였음.

성을 판단하는 영역에는 ‘경제 개념을 상황 분석에 활용한다.’, ‘경제학은 실용적이다.’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학습자가 경제학이 실제 사회 현상이나 개인적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경제 학습의 난이도 인식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영역에는 ‘경제학은 이해하기 쉽다.’, ‘경제학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 개념을 습득하고 경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학습자의 내적 신념을 평가하였다. ATE는 경제 과목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감, 불안, 회피 경향과 같은 정의적 반응을 수량화하여 인지적 성취도 측정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ATE 점수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높은 점수가 경제학 강좌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성과가 되겠지만 평균 아래의 ATE 점수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ATE는 단순히 경제학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며 교사나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Soper & Walstad, 1983).

<표 6> ATE 측정 문항

문항 번호	원문 문항 요약	태도 세부 영역 ³⁾	긍정/부정 태도 방향
1	Enjoy reading economic articles	흥미	+
2	Hate economics	흥미	-
3	Economics is easy to understand	난이도·자기효능감	+
4	Economics is dull	흥미	-
5	Enjoy economics	흥미	+
6	Studying economics is a waste of time	유용성	-
7	Economics is dreaded subjects	난이도·자기효능감	-
8	Read an unassigned economics books	흥미	+
9	Attend a economist's lecture	흥미	+
10	Economics is very difficult subjects	난이도·자기효능감	-
11	Economics is a favorite subject	흥미	+
12	Use economic concepts	흥미	+
13	Economics is practical	유용성	+
14	Economic ideas are dumb	유용성	-

3) ATE의 태도 세부 영역은 연구자들이 측정 문항의 성격을 바탕으로 분류하였음. Phipps와 Clark(1993)의 요인분석에서는 2번, 7번 문항이 복합 영역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았음.

3) EVI

EVI는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VI의 출발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Our Economy: How It Works*, Clawson, 1980)에 제시된 내용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가치와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측정 문항들은 교과서에 있는 가치와 관련된 주제들을 포함하였다.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정의적 측정과 관련된 개념과 주제들을 찾고, 이것을 측정 문항에 반영하였다. 최초로 250개의 문항을 제작하였고, 전문가 협의와 검토를 통해 모호하고 부적절한 문항을 배제하고 수정하여 150개 문항을 선별한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후 선정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36개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진술문을 제작하였다. 사전 검사를 통해 해당 진술들을 71개 문항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문항의 평균·분산·문항-총점 상관 등을 분석하고, 변별력이 낮거나 의미 중복이 있는 문항을 제거하여 44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어 요인 분석을 통해 8개 하위척도가 도출되었고 각 요인의 의미를 해석하여 척도명을 부여하였다.

각 척도는 서로 구분되는 특정 경제 태도 영역을 반영하며, 각각의 척도에서는 응답자의 경제적 태도를 하나의 문항이 아닌 다수의 문항을 통해 파악하였다. 다중 문항을 포함한 척도(multi-item scales)를 개발한 것은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된 지표보다 여러 문항을 아우르는 문항 세트가 타당도를 개선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O'Brien & Ingels, 1987). Scale 1에서는 미국경제 제도에 대한 지지 정도를 자원의 희소성, 경쟁과 이윤, 근로 윤리 등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cale 2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다루며, 기업에 대한 신뢰와 기업 활동의 긍정적 평가를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cale 3에서는 경제적 삶에 대한 개인의 통제감, 자기효능감, 경제적 비관주의 등을 평가하여, 개인이 경제적 결과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cale 4에서는 빈곤 완화, 최소 생활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복지 기능에 대한 정부의 역할 관련 가치 판단을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cale 5에서는 시장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과 가격 규제에 대한 가치지향을 드러내는 2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Scale 6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 경제에 대한 영향, 협상력의 적절성 등을 다루며,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가치관을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cale 7에서는 근로자 처우, 임금 공정성, 차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여 분배 정의에 대한 가치지향을 4개 문항으로 파악하였다. Scale 8에서는 현재 경제 구조와 소득 분포, 계층 이동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7> EVI 측정 문항

문항 번호	태도 하위 척도(Scale)	문항 내용 요약
1~12	Support for the economic system	희소성, 이윤, 기업의 기여, 노동과 임금, 직업선택의 자유, 경쟁의 효율성, 비용, 기술개발, 분업, 저축
13~17	Trust in business	리스크, 법인세, 광고와 선택, 직업선택 자유
18~24	Psychological-Personal Efficacy	무력감, 성공과 운, 부당한 이용과 이윤, 성공에서 소외
25~30	Government Role in Social Welfare	정부의 약자 보호, 사회권, 실업의 책임, 생활수준 보장
31~32	Government Role in Setting Prices	가격 결정·규제에 대한 정부 개입
33~35	Against powerful unions	노조의 영향력, 근로조건 협상, 노조 평가
36~39	Treatment of Workers	임금 불평등, 근로자 대우의 공정성 인식
40~44	Economic Status Quo	부의 불균등 분배, 경제 상황, 사업의 기회, 불평등한 사회보장

4) SAEE

SAEE (The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는 경제 현상과 변화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은 일반 대중과 경제학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SAEE는 경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하는지, 경제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리고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4) SAEE에서는 총 51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는데, 1~30번 문항까지는 경제 현상과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이고, 31~51번의 문항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실태를 조사하는 문항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 태도와 직접 관련된 1~30번 문항의 질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문항 내용 분석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4) Blendon 등(1997)은 성인 경제 인식조사인 SAEE의 조사 문항을 중심으로 ICR 리서치에서 실시한 보완 조사와 1995년의 조사 문항의 일부를 보완하여 ‘현재와 과거 경제 상황 인식’, ‘미래 경제 전망’,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8> SAEE 측정 문항

문항 번호	원문 문항 요약	태도 세부 영역 ⁵⁾
1	America's economy today	현재 경제 상황
2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ssues facing the country	현재 경제 상황
3	unemployment rate/inflation rate(compared to five years ago)	현재 경제 상황
4	guess percentage of unemployed	현재 경제 상황
5	guess current annual rate of inflation	현재 경제 상황
6	percentage of corporations' profit	현재 경제 상황
7	federal budget deficit(compared to five years ago)	현재 경제 상황
8	number of full-time jobs(during the past five years)	현재 경제 상황
9	new jobs' pay	현재 경제 상황
10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현재 경제 상황
11	family incomes going up faster than cost of living(during past 20 years)	과거 경제 상황
12	wages going up faster than cost of living(during past 20 years)	과거 경제 상황
13	two full-time wage earners	현재 경제 상황
14	standard of living(over the next five years)	미래 경제 전망
15	family's income has been going up	현재 경제 상황
16	reasons of family's income has not been going up	현재 경제 상황
17	expect your family's income to grow	미래 경제 전망
18	expect children's generation higher standard of living	미래 경제 전망
19	consider yourself a part of the middle class	현재 경제 상황
20	feel at risk of falling out of the middle class	현재 경제 상황
21	improving the economy and president's control	경제 영향 요인
22	factor good or bad for the nation's economy	경제 영향 요인
23	effects of new technology, competition from foreign countries, and downsizing(looking ahead 20 years)	미래 경제 전망
24	trade agreements' effect on the U.S. jobs	경제 영향 요인
25	current price of gasoline	경제 영향 요인
26	responsible for the recent increase in gasoline prices	경제 영향 요인
27	why the economy is not doing better than it is	경제 영향 요인
28	what is the reason the economy is not doing better	경제 영향 요인
29	why the economy is not doing better(with businesses)	경제 영향 요인
30	what is the reason the economy is not doing better(with businesses)	경제 영향 요인

5) SAEE의 태도 세부 영역은 연구자들이 측정 문항의 성격을 바탕으로 분류하였음.

첫째, 경제 현상에 대한 견해의 주요 질문 내용은 ‘경제 상황’,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재정적자’, ‘풀타임 직업’, ‘빈부격차’, ‘가계 소득’, ‘노동자 임금’, ‘생활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율’,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호전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를 묻고, ‘가계 소득’, ‘빈부격차’, ‘평균임금’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물었다. 특히 경제 현상 변화 질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상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5년 전과 비교해, 과거 5년 동안, 앞으로 5년에 걸쳐, 향후 20년을 볼 때 등의 기간을 설정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제를 실업률, 재정적자, 생활 수준, 새로운 기술의 영향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다.

둘째,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대통령 정책의 효과’, ‘감세’, ‘여성 고용 증가’, ‘기술 활용’, ‘무역협정’, ‘대기업 다운사이징’ 등의 변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울러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요소로 ‘높은 세금’, ‘과도한 재정적자’, ‘해외 원조 및 이민자 유입’, ‘기업의 조세감면’, ‘부적합한 교육과 직업훈련’, ‘과도한 복지 수혜’, ‘여성과 소수자 혜택’, ‘힘든 일 기피’, ‘과도한 기업규제’, ‘저축 부족’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소들이 주요 요인인지, 사소한 요인인지, 특별한 요인이 아닌지 등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관련하여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평가도 질문했다. ‘기업의 이윤추구 과다’, ‘최고경영자의 수익 과다’, ‘생산성 하락’, ‘기술의 노동 대체’, ‘고용의 해외 이전’, ‘다운사이징’, ‘교육과 직업훈련 투자 과소’가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주요 요인인가, 사소한 요인인가, 특별한 요인이 아닌가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는 요인과 기업 관련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요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도 포함하였다.

V. 논의

1. 경제 태도에서 측정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인 EAS, ATE, EVI, SAEE가 구체적으로 측정하려는 경제 태도의 양상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EAS는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경제 이슈에 대한 견해(student views are congruent with the consensus

views of the economics profession)', ATE는 '학교에서 학습하는 경제 과목에 대한 개인의 반응(individual response to economics as a field of study)'을 측정한다. 또한 EVI는 '경제 이슈와 관련한 가치에 대한 판단(young people's attitudes and values with respect to economic issues)'을, SAEE는 '경제 현상과 정책에 대한 견해(public understanding, assessments and attitudes about the economy and economic policy)'를 경제 태도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들을 종합하면 경제 이슈나 현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와 경제 학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로 구별할 수 있다. EAS, EVI, SAEE는 '경제 이슈, 현상'을, ATE는 '경제 과목(학습)'을 주요 측정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경제 태도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측정의 초점을 경제 현상 자체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 과목(학습)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SEA에서 경제 태도의 측정 대상을 경제 이슈에 대한 EAS와 경제 과목에 대한 ATE를 모두 포함하여 개발한 것과 같이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경제 현상 중심으로 태도를 측정하는 EAS, EVI, SAEE의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측정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AS와 SAEE는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학생)과 경제 전문가의 경제 현상에 대한 견해 차이에 주목하였고, EVI는 경제 전문가의 견해에 대한 검토 없이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진술에 대한 태도에 중점을 두었다. EAS는 태도의 정합도를 강조하였다. 정합도(sophistication)란 경제 이슈에 대한 판단이 경제 지식이나 사고방식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말하며 이는 인지적인 측면을 상당 부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EAS는 정의적 요인을 강조하는 태도 검사 도구를 지향하였으나, 지식을 기반으로 경제학자들이 합의하는 항목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검사 도구라는 지적을 받았다(Soper & Walstad, 1983). SAEE는 경제 현상에 대한 대중과 경제학자의 서로 다른 견해를 분석하고 있으나, EAS와 달리 정합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SAEE가 태도 측정에서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EAS와 유사하다. 구체적인 예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 대중들이 추정하는 '인식된 경제 지식'과 실제로 나타난 '사실적 경제 지식'을 조사하여 대중의 경제적 견해(태도)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EVI는 태도 측정 대상 학생의 견해를 경제 전문가와 비교하여 파악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 체제에 대한 지지, 기업에 대한 신뢰, 경제적 소외와 무력감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진술에 대해 나타나는 태도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EAS나 SAEE와는 달

리 인지적 측면이 아닌 정의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에 더 가까운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EVI를 통해 측정한 태도 결과를 지식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있었다. O'Brien & Ingels(1987)는 EVI의 8개 가치척도와 별도로 측정한 경제 지식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⁶⁾

ATE는 측정의 대상이 경제 과목이라는 점에서 경제 이슈나 현상 자체보다는 경제 학습에 초점을 두었고, 태도의 구성 요소도 정의적 측면에 해당하는 ‘흥미와 관심’, ‘유용성 인식’, ‘개인적 효능감’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측면의 영향을 받는 EAS, SAEE와 같은 측정 도구보다는 개인의 감정, 선호, 신념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충실하게 측정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의적으로 태도를 측정하고자 의도하면서도 인지적인 정합성이나 사실적 지식의 정확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태도 연구에서 지식과 태도, 혹은 지식과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제적 행동이나 정책의 결과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경제적 태도가 이와 다를 경우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Dawson, 1966; Mann & Furfeld, 1970; Rothman & Scott, 1973). 이 때문에 인지적 요소 못지않게 행동을 좌우하는 경제 태도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경제 태도의 측정에서 태도와 유사한 용어인 견해(view), 의견(opinion), 신념(beliefs) 등이 사용되었고 그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walstad, 1987). ‘경제 태도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는 경제 태도 측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측정 도구 설계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경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부 내용 요소로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경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EAS, EVI, SAEE는 경제 이슈나 경제 현상에 대한 태도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측정 대상의 하위 구성 요소인 구체적인 개념이나 주제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EAS, EVI, SAEE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

6) 경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체제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고 제한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8개 척도 중에서 5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3개(기업에 대한 신뢰, 정부의 사회 복지 책임,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척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은 실업, 기업 이윤, 가격 규제, 정부의 영향, 수입(임금, 이윤) 등이었다. 그러나 도 구별로 고유하게 포함하는 경제 개념이나 주제도 있었다. 가령 노동조합, 정부의 소득 보장과 같은 내용은 EVI에 포함되어 있지만, EAS에서는 이들 개념이 경제학자들의 답변 일치도가 70%에 미치지 못해 제외된 항목들이다. SAEE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인식, 새로운 직업, 부업(two job), 여성 고용과 같이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범주를 벗어난 항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민자, 새로운 기술의 영향, 경영자의 성과 보수, 다운사이징,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과 같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이슈도 포함하고 있었다.

태도 측정 내용 요소는 측정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SAEE는 성인들의 경제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따라 이들이 경제 정책을 선택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실제 경제에서 성인들이 당면하는 경제 이슈나 경제적 변화와 판단 기제에 집중하였다. 이와 달리 EAS와 EVI는 중고등학생을 측정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들이 경제 학습이나 생활 경험에서 접하게 되는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태도 측정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특히 EVI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경제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를 토대로 가치와 태도를 측정하는 내용을 도출하였다.

ATE는 경제 과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이슈나 현상 관련 내용 요소를 포함하는 EAS, EVI, SAEE와 차별화된다. ATE는 경제 과목(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용성 인식, 난이도와 효능감을 나타내는 질문으로 태도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경제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지 않고 ‘경제 과목을 싫어한다.’, ‘경제 과목은 쓸모 있다.’와 같이 학습에 대한 선호와 관심 자체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ATE의 문항은 Phipps와 Clark(1993)이 요인 분석을 통해 영역을 ‘흥미(enjoyment)’, ‘유용성(usefulness)’, ‘난이도(difficulty)’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경제 개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다른 도구들과 달리 그 하위 영역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또한, 경제 태도 측정 내용 요소에 포함되는 EAS, SAEE 등의 경제 개념이나 ATE의 선호 관련 질문 항목은 내용 타당도의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행화될 필요가 있다. Soper와 Walstad(1983)는 EAS가 경제 태도 측정 도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며, 경제 원리가 진화하면서 답변 혹은 질문이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경제 이슈와 관련한 경제 태도 측정에서는 ‘경제 성장’,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생활 수준’, ‘복지 정책’, ‘소득 분배’, ‘임금’, ‘기업’, ‘노동조합’

등이 전통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이슈에 ‘신 기술’, ‘구조 조정’, ‘개인 금융’, ‘플랫폼 노동’, ‘이주민 노동’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새롭게 포함되고 있다.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의 내용 구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개념이나 경제 이슈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 과목(학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개선 방향도 측정 대상인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경제 태도 척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경제 태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AS와 ATE는 측정 점수의 집계와 활용면에서 유사한 방법을 취했으나, EVI와 SAEE는 다른 방식으로 측정 점수를 분석하고 활용하였다.

우선 문항별 점수의 총합을 척도로 나타낸 사례가 있었다. EAS와 ATE는 각각 14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하나의 경제 태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였다. Soper & Walstad(1983)는 이들 도구를 통해 측정된 경제 태도는 문항들의 합산한 지수(지표)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EAS에서 개별 문항에 나타난 점수 변화를 이윤추구나 사적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로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태도 측정 문항들을 하위 영역별로 유목화하고, 해당 영역 내 문항 점수의 합을 태도 척도로 나타낸 사례도 있었다. EVI에 대해 O'Brien과 Ingels(1987)는 경제적 가치 목록 관련 문항들의 사전 검사에서 나타난 측정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8개의 척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⁷⁾ 이후 8개 척도에 포함된 하위 문항의 평균 점수를 해당 척도의 태도 점수로 활용하였다. Phipps와 Clark(1993)은 EAS와 ATE를 단일 속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EAS의 질문 항목들이 단일 차원을 측정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문항들이 4개의 구성 요소와 기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ATE의 문항에 대해서도 ATE가 단순히 경제 태도를 평면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흥미, 유용성, 난이도의 세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7) ‘미국 경제 체제’, ‘기업에 대한 신뢰’, ‘심리적 개인적 유능감(무력감)’, ‘사회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정부책임)’, ‘가격 설정에서 정부의 역할’, ‘노동 조합’, ‘근로자 대우(공평한 대우)’, ‘경제적 안정(분배적 안정)’의 8개의 척도 항목으로 구분하였음

또한, 다른 태도 구도는 개별 문항 자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항목의 태도 척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SAEE는 미국 성인 대중들의 경제적 견해 조사에서 개별 문항의 항목들 자체의 점수를 활용하여 경제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하였고, 문항들을 요인별로 구분하거나 집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Walstad(1987)는 일반적으로 의견(opinion) 조사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고하는 것에 비해 태도(attitudes) 조사는 측정 영역 문항들의 합계 점수를 통해 측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SAEE에서는 인식과 태도(perception and attitudes)를 조사하면서도 개별 문항의 점수를 태도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 태도 척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산출 방식 역시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경제 태도 측정 문항들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 점수를 척도로 활용할 것인지,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척도로 활용할 것인지, 개별 문항의 점수 자체를 독립적인 태도 척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영역별 점수를 척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문항을 사전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 후에 요인 분석을 통해 문항을 영역별로 구분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경제 태도와 경제 지식의 관계를 측정 도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가?

경제 태도 검사에서 정의적 차원이 아닌 인지적 차원의 경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검사 도구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SAEE, EVI와 같은 일부 경제 태도 측정 도구에는 지식 측정과 관련한 문항이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다.

SAEE는 경제 현상과 경제 정책에 대해 대중들이 경제전문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인지된 지식과 사실적 지식의 차이를 구분하고, 잘못된 지식에 토대를 둔 판단이 경제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의 일부 문항에서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을 직접 추정하게 하고, 오차범위 $\pm 5\%p$ 이내의 응답을 정답으로 간주하여 인지된 지식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EVI에서는 사전검사 단계에서 Schur(1973)가 개발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제 지식 검사(JHSET: Junior High School Economics Test)를 활용하여 경제 이해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이해가 높은 학생이 미국경제 체제와 경제의 효율성에 대해 더 긍정적 견해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적 이해 정도와 태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EVI의 8개 영역 중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 정부의 사회 복지에 대한 책임, 노동자의 공정한 대우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제적 이해가 태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VI의 최종 평가 문항 44개에는 지식 측정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가치 관련 문항만을 최종적으로 수록하였다.

EAS와 ATE는 측정 도구에서 지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EAS의 경제 태도 점수에 대해 Soper(1979)는 경제이해력 검사인 TEL(Test of Economic Literacy) 점수와 통계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TEL 점수 상승이 EAS 경제 태도 점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밝혔다. ATE와 인지적인 성취의 관계에 대해서 Soper와 Walstad(1983)는 TUCE(Test of Understanding in College Economics)와 ACT(American College Testing)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검사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경제 태도 측정 결과를 경제 지식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경제 태도 측정 도구에 경제 지식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경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경제 태도가 경제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alstad, 1987). 따라서 태도 자체가 인지적 요소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구성 요소로서 중요성을 갖지만, 학습자의 경제 지식이 태도 형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두 측정 결과를 연계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요구를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태도’는 정의적 요소로서 인지적 요소인 ‘이해’ 못지않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 태도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과정과 도구의 성격 및 척도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Walstad, 1983). 이 연구에서는 태도 측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 교육 현장에서 개발된 대표적 도구인 EAS, ATE, EVI, SAEE를 분석하였다. 이 측정 도구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거쳤고 ‘경제 태도를 측정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측정 목적이나 대상, 방법 등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무엇을 태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이나 문항을 어떻게 추출하였는지, 측정 도구의 개발 절차나 점수 척도의 산출 방식이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네 개의 측정 도구를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태도를 규정하는 관점에서 발생하였다. EAS, EVI, SAE는 태도의 대상을 경제 이슈나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ATE는 경제 과목(학습)을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EAS와 SAE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반 대중이나 학생들의 견해 차이에 주목했다. 그 가운데 EAS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합의하는 경제적 사고 구조를 토대로 태도의 정의적(affective) 측면인 규범적 가치나 감정적 선호보다는 경제적 사고 및 판단의 정합도(sophistication)를 강조하여 태도 측정이 인지적 측면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받았다.

경제 태도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의 추출도 EAS, ATE 등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하였고, EVI는 경제 학습에 사용하는 교과서 속의 가치와 관련된 주제들을 근거로 문항을 도출하였다. 태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역시 EAS와 ATE는 총합 점수를 사용하였으나 EVI는 척도별 점수를 사용하였고, SAE는 개별 문항의 점수를 사용해 측정 도구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종합적으로 태도 측정 문항에서 SAE와 EVI 같이 일부 인지적 문항을 포함한 사례도 있었지만, 네 개의 측정 도구 모두 응답자의 가치나 선호가 포함된 견해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 태도 측정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쟁에 대한 판단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최호상, 2003; 김근영 외, 2004; 최병모 외, 2004; 조병철, 2006; 오영수·권우택,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당시의 사회적 쟁점에 대응한 성격이 강하여 측정 체계의 표준화와 지속적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KDI 등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전국 단위의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경제 태도 검사가 독립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 경제 지식과 이해 측정 중심의 경제이해력 조사의 한 부속물 정도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인지적 검사에 비해 태도 검사는 체계적으로 설계되기도 못하고, 추후 분석 과정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태도가 경제적 행동, 특히 비합리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경제 태도 측정은 이해력 측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태도와 지식 이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타당한 경제 태도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 태도 측정의 대상을 경제 이슈로 국한할 것인지, 경제 과목(학습)에 대한 선호도 포함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도 측정의 대상이 학생일 경우는 경제 과목(학습)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경제 태도의 대상인 경제 이슈나 현상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 요소에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업, 임금, 가격 규제, 정부 역할 등 전통적인 경제 개념이나 주제는 기본적으로 반영될 것이지만, SAE의 문항에서 볼 수 있는 신기술, 이민자 노동, 다운사이징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강조되는 개인 금융, 직업 환경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 태도 측정 결과 나타난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고,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EAS, ATE와 같이 개별 문항들의 총합을 태도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태도 검사의 정체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를 전제로 개별 문항들이 하위의 영역을 구성할 경우, 영역별 점수를 통계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 이해력 점수와 태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학술적 요구를 문항 설계 및 결과 분석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제 태도 측정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요성에 비해 그간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가 미흡했다. 경제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 과정에서 EAS, ATE, EVI, SAE 외의 전문 연구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측정 도구 개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의 특징과 개발 과정의 핵심 요소가 추후 국내 경제 태도 설계 및 고도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근영 · 최숙희 · 이언오(2004), 청소년 경제교육,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박영석(2014), 경제적 태도의 특정항목중심 CAB 측정 방안 연구, 경제교육연구, 21(3), 61-84.
- 오영수 · 권우택(2007), 고등학생의 기업 윤리 의식 조사를 통해 본 기업 윤리 교육 방향, 경제교육연구, 14(2), 1-26.
- 장경호 · 한경동(2010), 고등학생의 경제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고교생 경제한마당 응시자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17(1), 49-69.
- 전창완(2015), 경제 단원의 학습이 경제 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63(1), 91-116.
- 조병철(2006), 사범대학생들의 경제의식 경제지식 경제행동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54(3), 197-222.
- 최병모(2004),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서의 학생들의 경제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36(2), 337-398.
- 최병모 · 김정호 · 허인숙(2004),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학생들의 시장경제 인식 및 의식의 현 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경제교육연구, 11(1), 83-108.
- 최호상(2003),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한진수(2013), 초등학생용 경제 태도 검사 도구 개발, 경제교육연구, 20(1), 165-188.
- 황인학(2015), KERI insight 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한국경제연구원.
- Becker, W. E. (1983), Economic education research: Part I, issues and question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4(1), 10-17.
- Beckler, S. J.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47(6), 1191-1205.
- Blinder, A. S. and D. Holtz-Eakin (1984), Public opinion and the balanced budget, *American Economic Review*, 74(2), 144-149.
- Breckler, S. J.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6), 1191-1205.
- Brock, G. J. (2011), Student attitudes and knowledge change in an introductory a college economics course, *The Georgia Social Studies Journal*, 1(1), 45-61.

- Caplan, B. (2001), What makes people think like economists? Evidence on economic cognition from the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4(2), 395-426.
- _____(2007), *The Myth of the Rational Voter: Why Democracies Choose Bad Polic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wson, G. G. (1966), Changing Students' Attitudes, *Improving College and University Teaching*, 14(3), 200-203.
- Eagly, A. H. (1994), Cognitive and affective bases of attitudes toward social group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13-137.
- Esses, V. M. (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05-1118.
- _____(2002), Expanding the assessment of attitude components and structure: The benefits of open-ended measur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 71-102.
- Fraenkel, J. R. (1987). Toward improving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5(3), 203-222.
- Jaccard, J. (1975),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four attitude assessment proced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149-154.
- Klausmeier, H. J. (1975), *Learning and Human Ability: Educational Psychology*, Harper & Row.
- Kornhauser, A. W. (1930), Changes in the information and attitudes of students in an economics cours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2(4), 288-298.
- Mann, W. R. and D. R. Fushfeld (1970), Attitude sophistication and effective teaching in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2), 111-129.
- Meinkoth, M. R. (1971), Textbooks and the teaching of economic principl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2), 127-130.
- O'Brien, M. U. and S. J. Ingels (1987), The Economics Values Inventory,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8(1), 7-18.
- Ogburn, W. F. (1922).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New York: B.W. Huebsch.

- Phipps, B. J. and J. E. Clark (1993), Attitudes toward economics: Uni- or multidimensional?,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4(3), 195-212.
- Rothman, M. and J. H. Scott (1973), Political opinions and the TUCE,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2), 116-124.
- Sapienza, P. and L. Zingales (2013), Economic experts vs. average America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121-126.
- Schulman, H. and S. Presser (1981), *Questions and Answers in Attitude Surveys*. Academic Press.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 Scott, J. H. and M. Rothman (1975), The effect of an introductory economics course on student political attitud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6(2), 107-112.
- Siler, C. L. (1987). Content analysis: A process for textbook analysis and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dal Education*, 1(3), 78-97.
- Soper, J. C. and W. B. Walstad (1983), On Measuring Economic Attitud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4(4), 4-17.
- _____(1987), *Test of Economic Literacy*, 2nd ed. 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 The Washington Post,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arvard University Survey Project (1996),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 Harvard University.
- Triandis, H. C. (1971),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John Wiley & Sons Inc.
- Tyler, R. W. (1973), Assessing Educational Achievement in The Affective Domain, *Measurement in Education*, 4(3), 1-8.
- Van Wyk, M. M. (2012), Measuring Students Attitudes to Economics Education: A Factorial Analysis Approach, *J Soc Sci.*, 31(1), 27-42.
- Walstad, W. B. (1984),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Economics Instruction for Teachers an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5(4), 297-308.
- _____(1997), The effect of economic knowledge on public opinion of economic issu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8(3), 195-205.
- Walstad, W. B. and J. C. Soper (1989), What is high school economics? Factors contributing to student achievement and attitude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0(1), 23-38.

<Abstract>

Analysis of Economic Attitude Measurement Tool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Youngserk Park* · Byoung Il Choi**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key elements for developing tools to measure economic attitudes, which influence economic behavior as much as cognitive factor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Economic Attitudes Sophistication (EAS), the Attitude Toward Economics (ATE), the Economic Values Inventory (EVI), and the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 (SAEE). The analysis focused on the purpose of the instruments and the extraction and composition of measurement eleme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ATE measured attitudes toward economics (learning), while the EAS, EVI, and SAEE measured attitudes toward economic issues or phenomena. A notable characteristic of some economic attitude measurement tools was their focus on comparing the opinions of economic experts. The methods for calculating attitude score scales also varied, including summative, domain-specific, and item-specific methods. It was common to compare economic attitude test results with cognitive achievement.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key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a valid economic attitude measurement tool: the nature of the attitudes being measured, the reflection of new economic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subitem content elements, and the systematization of attitude indicators and their utilization.

Key words: Economic attitudes, Affective factors, Attitude measurement, Economic attitude scale

원고접수: 2026년 03월 04일 심사일: 2026년 03월 12일 ~ 2026년 03월 27일
 게재확정: 2026년 03월 30일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spark@ginue.ac.kr).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oi0704@kangwon.ac.kr).